

실용적 의사소통을 위한 과학기술 글쓰기 교육

-영남대학교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박 승 희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round33@ynu.ac.kr

영남대학교 국문학 학사
영남대학교 국문학 박사
관심분야: 근대적 글쓰기 및 학문적 글쓰기 교육

1. 실용적 글쓰기 교육과 과학기술 글쓰기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회 및 국가적 요구가 남다른 요즘, 영남대학교에서는 수년 전(2004)부터 전문적인 직업 세계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직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자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제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의 결과이다. 전문적인 직업 세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조직 활동의 창조적 논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글쓰기는 지식 정보의 교환은 물론 직장 생활과 업무의 수직 혹은 수평 구조를 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 교육을 마친 신입 직장인들이나 예비 직장인들의 글쓰기 현실은 보고서나 제안서 작성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것은 곧 대학 의사소통 교육의 하나로서 글쓰기 교육의 현실적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글쓰기 교육은 그동안 동일한 내용과 방식의 글쓰기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공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가르쳐왔다. 특히 글쓰기가 자기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이러한 획일적인 교육 방식은 글쓰기 무용론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고등학교 시

절부터 일방적인 이과식 교육 프로그램에 익숙한 이공계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력과 언어 활용 능력은 공식적인 주문에 불과한 것이다.

객관적인 정보의 정확한 전달은 과학·기술자로 성장해가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능력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공계 학생들은 그 학문적 성취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과 언어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최근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의 강화는 그런 점에서 뜻 깊은 일이다. 영남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대학 대내외적인 변화와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직업세계와 맞춤형 글쓰기'라는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 활동과 교재 편찬을 통해 구체화해 오고 있다. 그것은 우선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직업세계 등 4개 계열로 글쓰기 강좌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의 교재를 글쓰기 일반론 부분과 전공별 특화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특히 '이공계열 직업세계와 맞춤형 글쓰기'(이하 이공계열 맞춤형 글쓰기) 교재는 이공계열 관련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글쓰기 교육을 위해 편찬되었다.

'이공계열 맞춤형 글쓰기 교재'는 생산현장, 과학실험, 산업연구개발, 약·의학 분야 등 각종 이공계열의

직업 공간과 특성을 그 대상으로 하여 실제 직업 현장에서 필요한 글쓰기 양식 등을 주요한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품설명서, 기술과학 보고서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등 직장 생활에서 과학·기술자에게 요구하는 일상적이며 실질적인 글쓰기 양식 등을 중심으로 교재는 편찬되어 있다. 또한 대학 생활에서 이공계생으로서 필요한 보고서 및 논문 작성 등도 교재 편찬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였다. 그 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글쓰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적 글쓰기와 취업과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등도 교재에 포함시켰다.

2. 이공계열 맞춤형 글쓰기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

영남대학교의 ‘맞춤형 글쓰기’는 교양필수과목으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공계열 맞춤형 글쓰기’는 이공계열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한 주에 3시간 동안 교육 활동이 진행된다. 특히 교수 활동이나 교육 과정이 각 전공 학부 및 학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자연계열 일반 강좌를 두어 이공계열 학부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수 활동은 주로 전담 교수(각 학과(부) 글쓰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교수)가 담당하며 이들은 한 학기에 1회 이상 이공계열 글쓰기 관련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이공계열 글쓰기 관련 문제를 논의해 오고 있다. 특히 영남대학교 공과대학의 공학인증제 및 누리(NURI) 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재 및 교수 방법에 대한 학기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의는 교재 중심의 글쓰기 이론 교육과 전공 관련 글쓰기의 실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여기서 교재 교육은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쓰기 실제 교육은 다양한 실용적 글 양식을 학생들이 직접 쓰고 피드백을 통해 수정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활동은 위에서 말한 바처럼 교재 교육과 글쓰기의 실제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교재 교육은 이공계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한 글쓰기 심리, 글쓰기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실제 직장인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글쓰기가 단순히 의미 전달의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과정임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글쓰기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필자, 독자, 텍스트, 사회적 맥락, 담화 관습, 사용 언어 등의 요인과 능동적으로 교섭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맞춤법과 비문의 치료 등을 통해 자신을 글을 진단하고 직업과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글 양식들을 배운다. 글쓰기의 실체는 이공계생들에게 필요한 기술 보고서부터 제품 설명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 양식을 직접 쓰고 이를 발표와 토론, 피드백을 통해 수정하는 과정이다. 특히 이공계생들이 주로 쓰고 있는 글쓰기 및 표현 방식인 문구 쓰거나 연구 결과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 개개인의 글쓰기 맥락과 학습 상황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피드백 과정을 중요한 교육 방법론으로 하고 있다. 즉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글쓰기 상황 속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교육적 소통을 피드백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3. ‘이공계열 맞춤형 글쓰기’ 교육의 한계와 개선방향

영남대학교 이공계열 맞춤형 글쓰기는 실용적인 글쓰기 교육을 위한 맞춤형 글쓰기 교육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교재 등에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공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공별, 대상별, 수준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공계열 내에도 다양한 전공이 있다, 예를 들면 공학, 이학, 의학, 약학 등 학습 과정과 연구 과정, 교육 시스템에 있어 일차적으로 구분되는 전공들을 고려한 맞춤형 글쓰기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동일한 교재와 교육 내용으로는 이러한 전공의 다양성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글쓰기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이공계열의 하위 단위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더욱 세분화해야만 한다. 또한 전공 교육과의 네트워크와 자료 공유 등 교육

의 상호 텍스트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현재 맞춤형 글쓰기 교육은 서로 다른 독자를 상대로 그 목적에 맞는 글을 쓰는 경우를 전제하지 못하고 있다. 전공 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서로 다른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일반 대중을 위한 글쓰기인지 등 독자 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글쓰기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상에 따라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설명 중심의 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험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교육 내용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글을 쓰는 맥락과 필자의 의도와 목적, 독자의 지적 수준과 관심도 등 상호맥락적인 의사소통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교육 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준별 교육의 현실화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신입생때부터 기본적인 글쓰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를 토대로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실질적인 '맞춤형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둘째, 실용적 글쓰기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 모색과 직업세계에의 적용 방식 및 활용 등에 관한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 각종 직업과 관련된 실질적 글쓰기 과정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글쓰기 과정을 체험하는 실천적 글쓰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직업에서의 글쓰기의 중요성과 글쓰기 능력을 통한 자기 경쟁력 확보를 학습자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공계열 맞춤형 글쓰기와 전공 교육 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의 문제이다. 실제로 이공계열 교수들 중에는 글쓰기 교육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것은 물론 글쓰기 교육의 질적 수준과 실질 효용성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를 해소하고 생산적인 글쓰기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공계열 전공 수업 및 커리큘럼과 연계된 글쓰기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남대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이공계열 교수진과의 직접적인 소통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글쓰기 교재 차원에서 전공 글쓰기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이공계열 교육 활동과 연구 과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선·후학 간, 동료 간의 협력 학습과정을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가설을 발전·수정·폐기하는 과정에서 실험실 혹은 연구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은 연구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가설이나 이론을 정교화하고 연구 과정과나 결과를 지시하는 과정 자체가 글쓰기를 통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협력학습은 필수적인 학습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협력학습은 필자의 사고력을 형성하는 과정, 즉 아이디어를 생성, 조직,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상호 교류와 피드백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학문적 담화공동체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협력학습은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 속의 협력 활동과도 관련된 종합적인 의사소통 경험이 될 것이다. 학문 생활은 물론 과학·기술 직업세계에서도 협력적 글쓰기는 필수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4. 과학·기술 글쓰기의 체계화를 위하여

주지하다시피 이공계열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동시에 그것이 불필요한 능력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우선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분야의 학문과 사회 진출 및 직업 생활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빨리 깨닫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열 학생들의 선입견을 만들고 있는 고답적, 비효율적인 글쓰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글쓰기를 통한 인문학적 사유를 이공계생들이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과 직업 등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깨닫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글쓰기의 실용적 접근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글쓰기 교육으로 생각된다. 현재 영남대학교에서 실시 중인 이공계열 맞춤형 글쓰기는 방향과 글쓰기 전략을 구체화하고 과학·기술 글쓰기의 현재성을 교육 내용에서 실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획: 신선경 편집위원 (skshin4@kut.ac.kr)